

# 전북자치도교육청 18일 출범

**더 특별한 전북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새로운 비전 슬로건·교육특례 등 소개  
 “한국 교육 중심 만들 것”  
 출범식은 22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이 17일 오후 4시 1층 전북도교육청 야외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발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한승수 정책국장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 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의미와 함께 새롭게 변경된 비전과 슬로건을 소개하고,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교육 청사진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함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다. 이는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여된 교육 자치권을 확대한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한승수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한승수 정책국장(사진 왼쪽)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육 분야 4가지 특례가 포함됐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특례가 적용되면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끝으로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이반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한승수 정책국장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부안 등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방침이다. 3유형은 신청단위가 ‘광역지자체가 지칭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인 유형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승수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이 17일 오후 4시 1층 전북도교육청 야외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발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교육, 한 단계 더 도약’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제막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이 17일 오후 4시 1층 전북도교육청 야외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표지석 및 사인물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맞춰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막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정수 의원,

14개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은 교육 자치권을 확보해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를 해결하고,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서거석 교육감에게서 들어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의 교육 문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 마련”

Q. 전북특별법 교육특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한 성과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등 총 4개입니다.



미반영 특례 중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Q. 2차 특례 발굴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북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2차 교육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11월 23일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별법 중 공통 내용에 대해 공동 대응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특례 관련 정책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전북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40여 개 항목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교육발전특구가 최근 이슈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지자체 및 대학 등과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차 지정에 지역별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일부 지역(군산, 전주, 김제, 순창, 임실 등)에서도 7월 2차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중이며, 이날 말에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과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및 규제 개선안을 발굴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장은성 기자



###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99% 이상 달성 목표

### 도교육청, 결산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16~17일 이틀에 걸쳐 참조내리 시청각실에서 도내 각급 학교 회계 결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학교 회계 결산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인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3학년도 결산 처리 방법 및 재정집행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정확한 회계 결산과 불용액 최소화 학교회계 집행률 99% 이상 달성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순세계영여금 및 불용액 최소화 △명사이월 원칙 준수 △간주처리예산의 편성요건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목적사업비 반납매뉴얼(당해연도 반환금 이용) 개선 △2024. 2. 29. 이후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명시이월신청 기능 제한 등의 행정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학교회계 우수집행 학교에는 교육감 표창 및 5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시·청 자료를 활용한 업무 관련 이론 및 실무처리 절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학교회계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저산소 MAX 합성 기술 상용화 추진

### 전북대 산학협력단, 엘오티아이와 기술이전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저산소 MAX(맥스) 합성 방법’ 기술이 타이타늄 합금 분말 분야 선도기업인 (주)엘오티아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주)엘오티아이와 지난 16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정민 단장과 (주)엘오티아이 강황진 부사장, 그리고 이 기술의 개발자인 임재원 교수(신소재공학부)가 참여했다.

(주)엘오티아이는 임재원 교수가 2021년 설립한 교원창업 기업으로, 독자적인 탈산 및 혁신적인 표면 개질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3D 프린팅용 저산소 고유동성 타이타늄 합금 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저산소 MAX 합성 방법’은 2차원 소재 MXene(맥신)의 전구체인 MAX 물질을 저산소 상태로 합성하는 원천 기술이다. MXene 제조 시 전기전도도가 50% 이상 향상되어 MXene 물질의 적용 분야를 넓힐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에 따르면 MXene는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로, 높은 전기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화학



물로 조합할 수 있어 전자파 차폐제, 배터리, 촉매,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꿈의 신소재라 불린다. 기존 MAX 물질은 다량의 산소가 함유돼 MXene의 전기전도도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탈산 기술을 적용해 저산소 MAX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

이 기술을 이전받은 (주)엘오티아이는 저산소 MAX 물질을 대량 생산해 제조 원가를 낮추고, 특히 2차원 소재인 MXene의 전자파 차폐제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를 진행해 MXene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평가서 ‘우수’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진로취업 인프라 서비스 강화 △통합상담 서비스 체계화 △진로 교과목 운영 내실화 △진로취업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하며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보내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 매칭과 채용 박람회 등을 실시했다. 또 진로로드맵에 기반한 취업 지원체계 확립, 경력개발시스템 기반 진로 취업·심리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